

Eco Packaging Trends for Online Shopping in Taiwan

대만의 온라인쇼핑용 에코패키징 동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서론

대만 환경보호서는 ‘온라인쇼핑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網購包裝減量指引)’ 과 ‘온라인쇼핑 포장재 감량 인증마크(網購包裝減量標章)’ 를 지난 10월 21일 발표하고 에코패키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PChome, Shopee, momo, Yahoo, 博客來, 生活市集, IKEA 등 현지 주요 온라인쇼핑몰 11개사, 포장재 제조사 10개사, 물류기업 1개사가 선발대로 동참하기로 했다.

II. 온라인쇼핑용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은 2022년까지 단계별로 달성 기준을 제시할 예정으로, 1단계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포장재 중량은 소포 총중량의 10% 미만, 포장테이프 길이는 일자 테이핑 시 상자 길이·높이 합계의 2.5배 이하, 십자 테이핑 시 길이·높이 합계의 2.5배와 폭·높이 합계의 2.5배 이하를 사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포장재 재질·인쇄면적을 제한한다. 수거 가능한 단일 소재(종이 또는 PE)를 사용하고, PVC 소재의 포장재·완충재·포장테이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종이류 포장재는 재활용지 100%,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접착제는 수용성을 사용하고, 금속, 왁스, 코팅 필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종이류 포장재는 종이의 원래 색을 유지해야 하고, 인쇄 시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고 인쇄 면적은 포장재 표면 면적의 50% 이하, 완충재는 인쇄면적이 20% 이하를 차지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의 재사용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소포 수령 후 포장재를 수거 거점(편의점 등)에 반납하거나 배달원에게 전달하면 발신자가 포장재를 수거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소포 발송 시 발신자는 소비자로부터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선수령하고 포장재 수거 후 환불해야 한다.

또한 포장재 재사용률을 온라인쇼핑몰 출고건수의 1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포장재 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발대로 동참한 온라인쇼핑업체를 기준으로 연간 소포 발송량은 4,200만 건에 달하며 포장재 사용량은 17,000톤에 달한다. 이 가이드라인 실시 후 첫 해에만 1,700톤의 포장재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대만 환경보호서는 기대

Ⅲ. 인증마크의 기준

인증마크는 거래형태별로 취득 조건이 상이하다. B2C는 가이드라인 1~3단계를 모두 이행해야 하고 B2B2C, C2C의 경우 1단계를 이행해야 한다.

B2C 인증마크 하단에는 ‘포장재 감량, 친환경 소재, 재사용 포장재’ 문구를 명시하고 B2B2C, C2C 마크 하단에는 ‘포장재 감량’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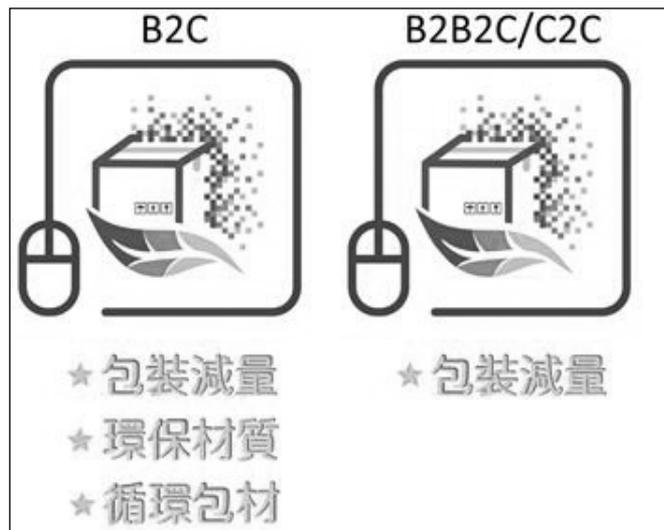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데 동참한 온라인쇼핑몰에는 이 인증마크를 발급해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Ⅳ. 대만 현지의 에코패키지 사례

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쇼핑 택배 포장재 대상으로 한 것이나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 속에서 상품 포장의 친환경성에도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브랜드 BenQ는 신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패키지 디자이너가 참여해 포장재 쓰레기를 80% 감량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했다. 2019년 iF,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골드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사진 1] 에코패키지 인증마크



[자료 : 환경보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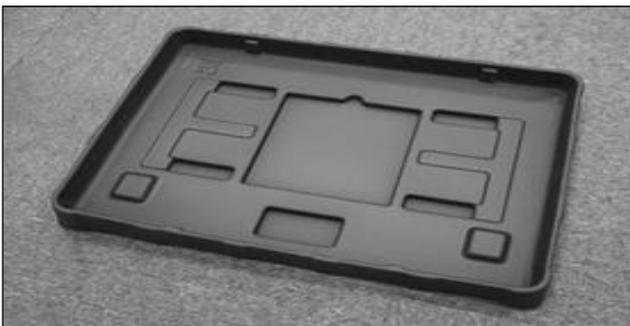
[사진 2]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한 패키지



[자료 : BenQ 홈페이지]



[사진 3] 완전 자연 분해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완충재



[자료 : Gigabyte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 크기에 따라 파손 방지, 포장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회사는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패키지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것이다. 이 패키지는 요철형 종이 상자로, 별도의 완충재 없이 외부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

컴퓨터 제조사 Gigabyte는 100% 농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완충재를 개발했다. 밀 껍질, 옥수수대, 사탕수수 찌꺼기, 코코넛 껍질, 커피 찌꺼기 등으로 만든 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원료를 첨가하지 않아 자연환경에서 1~2년 만에 완전 분해된다. 2017년 Golden Pin, 2018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

전자제품 제조사 LiteOn은 컴퓨터 키보드 포장재 속면에 삽화를 추가해 보드게임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디자인을 선보였다. 2019년 Red Dot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V. 결론

대만의 에코패키징 규정은 온라인 쇼핑용 택배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준이나 현지 정부가 환경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진 4] 포장박스를 보드게임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에코 콘셉트 디자인



[자료 : Red Dot 홈페이지]

금은 에코패키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하는 수준이나 향후 법제화 추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약 이 제도를 법제화해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 무역관은 "대만 진출 시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 뿐만 아니라 패키지에 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장즈징(張子敬) 대만 환경보호서 서장은 "지



서적 안내

신·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KOPA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